

약속하신 안식

신학박사 조 덕운

[히브리서 4:1-10]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2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3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4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5 또 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6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퍽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10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 세가지 안식에 대하여 쓰여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후에 오는 안식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순종함에서 오는 안식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1. 구원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사망의 어둠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5: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한 영혼의 이러한 기적적 변환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안식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안식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30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휴식과 안식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안식인 것으로서, 이는 죽음의 어두움에서 구원 받아 영생의 산 소망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오에서 오는 기쁨과 안식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안식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소위 ‘엑소더스’ 일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소망없이 노예로 고통받고 안식 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현실화 될 전조는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기 전날 밤에 경험한 ‘유월절’ 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집들을 건너 뛰어서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사망의 저주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결정타는 하나님께서 아카바 만의 바닷물을 가르심으로써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도록 하신 기적으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추적해 온 이집트 군대가 그 물결에 휩싸여 몰살 당하였고, 그들이 몰았던 마차들의 잔해가 수년전 그 바닷속 해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건너편에서 수백년 만에 큰 안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안식이며,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동일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2. 믿음의 순종에서 오는 안식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두번째 안식은 믿음 가운데 순종함에서 오는 안식입니다.

구원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와의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계획을 거부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40 년간 광야에서 유랑의 세월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수백년 후에 다윗 왕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거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4:6-7]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죽음의 경험에 비유하고, 약속의 땅을 마치 구원받은 영혼이 하늘에서 즐기는 영생의 축복이라 비유하고, 심지어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비유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은 40 년의 광야 방향을 종결하고 여호수아의 통솔 하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순종을 행동으로 보인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싸워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40 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련해 주신 물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성막을 짓고 예배의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 두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 3]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약속하신 두번째 안식을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안식을 맛보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불순종의 백성들이 자신의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종의 행위에서 오는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싸움과 격량의 경험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약속하신 영적 축복을 소유하게 됨을 일찌감치 구약의 역사에서 잘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어 우리의 전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 승리하여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권면합니다.

3.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최종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의 역사를 6 일 동안에 마치시고 제 7 일에 휴식하셨고, 인간에게도 그러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1-3]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2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첫째 안식과 두번째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안식이 남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4:8-9]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다.

그런데, 첫째 안식과 두번째 안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마지막 안식을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 후에 맛보게 될 안식을 묘사하는 그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는 동안 거지 나사로는 힘든 생활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께 인정 받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죽음 후에 그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과 평안을 즐기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22-23]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다. 23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죽은 영혼들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12-13]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후에 이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승리를 쟁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록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온 기쁨과 안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를 얻게 되어 큰 안식을 또한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이 끝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또한 주님 오셔서 온 땅에 참된 안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2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한국: 신한은행 110-008-655930 [조덕운]